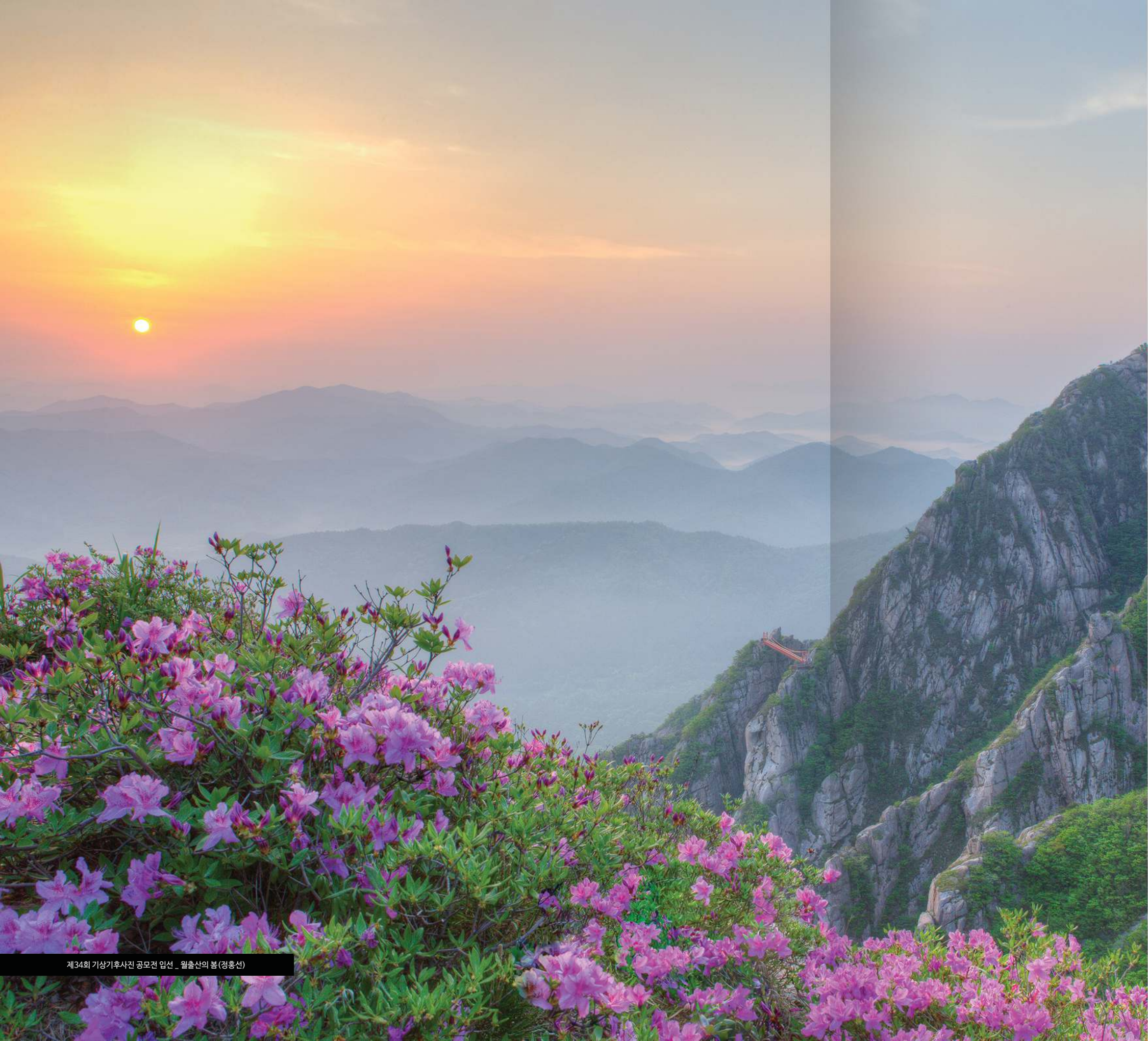


2020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 (Vol.19)

e - 날씨 이야기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34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_ 월출산의 봄 (정홍선)

CONTENTS

2020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Vol. 19)

WEATHER

- 04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1- 벚꽃 엔딩
- 06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2- 봄의 불청객 황사, 나쁘기만 할까?
- 08 /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3- 빨리지는 여름, 폭염에 대비하자

REPORT

- 10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1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4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8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 20 / 기상청 전자민원
- 21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 22 /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 23 / 2020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일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0년 5월 29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훈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준휘(기획운영과), 안현진(예보과), 이영미(관측과), 김민희(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정수(관측과), 김호(기후서비스과), 박민규(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배철호(예보과), 백은희(예보과), 이상걸(예보과), 이진화(예보과), 장민준(예보과), 최유미(기후서비스과)

기상청은
계절 정보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남기기 위해 기상관측과
계절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 노래는 장범준 가수의 "벚꽃엔딩" 중 한 소절로 봄이 되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아직은 이른 상상이지만 하얗고 분홍의 고운 꽃이 길게 늘어선 벚나무 길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걸을 생각하면 벌써 행복해지고 설렌다.

지난 겨울은 어느 해보다 따뜻해 금방 봄이 올 것처럼 보였지만, 겨울 내 실력발휘를 하지 못한 동장군은 봄이 오는 걸 시샘이라도 하듯 지난 2월 하순 우리 지역에 겨울 중 가장 많은 눈을 가져왔다. 꽃봉오리를 야금야금 키우던 매화,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 등 봄을 대표하는 꽃들은 동장군의 입김에 우리가 추위에 움츠리듯이 꽃망울 키우는 것을 급하게 멈춘 듯 하였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 그동안의 여러 경험적 지식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미 달력에서는 단어 그대로 봄에 진입하는 입춘이 지났으며, 겨울 방학이 지나고 입학시즌이 되고, 두터운 겨울 외투를 세일한다는 생활광고지 전단에서 봄이 됐다는 것을 시나브로 느낀다. 기상청은 이러한 계절 정보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남기기 위해 기상관측과 계절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기상관측을 통해 기상학에서는 4계절을 구분하는 정의를 내렸으며, 봄은 일평균기온(기준일과 전·후일의 4일을 포함한 9일의 평균된 값)이 5℃ 이상으로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때를 봄의 시작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평균기온, 평균값 등 이러한 기상관측 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자연의 변화 정보에 익숙하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계절관측은 계절의 빠르고 늦음의 지역적인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관측하고 통계 분석하여 기후변화의 추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봄을 대표하는 식물 계절관측종목으로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복숭아, 배나무, 아까시나무가 있으며, 각 지역의 관측결과 차이와 동일지점의 장기간 관측결과를 비교하여 계절의 변화 정보를 알 수 있다. 봄의 신호탄인 매화는 예로부터 추운 날씨와 눈 속에서 굳은 기개로 피는 하얀 꽃과 은은하게 베어나는 향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글과 그림으로 많이 남기기도 하였다. 우리 지역의 봄을 알리는 매화는 대전지방기상청 관측장소에 심어져 있으며, 2월 4일 따뜻한 겨울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45일 빠르게 발아하였고, 최근 10년 발아와 개화가 점점 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봄을 알리는
매화는 대전지방기상청
관측장소에 심어져 있다

평년의 적절한 시기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개나리가 겨울철에 피는 등 시기에 맞지 않고 평년과 전혀 다른 때를 이상 현상(Unseasonal Phenomenon)이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뉴스, SNS 등 많은 정보를 통해 봄꽃 개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는 봄꽃과 관련된 크고 작은 지역 축제와 동학사, 신탄진 등 벚꽃 명소에서는 봄의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많은 방문객을 기다린다. 하지만, 늦은 겨울 동장군의 기세에 우리와 봄꽃이 움츠려들듯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봄꽃 구경을 가는 것을 고민하게 만든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아산과 진천에 입소한 우한교민들은 안전하게 퇴소하였다. 건강하게 집으로 가시는 분의 인터뷰 중, 격리기간 동안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고, 누군가 문 앞에 놓아준 꽃이 매우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한다. 봄철 사랑하는 누군가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꽃향기를 맡껏 누리기 위해 빠른시일 내에 코로나19의 엔딩을 바라며, 올해도 행복한 벚꽃 엔딩이 되기를 바래본다.

기상 현상과
환경오염원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기온이 오르고 꽃이 피는 봄은 그대로인데 너무나 달라져버린 봄을 맞이하는 요즘, 건강한 봄이 무척 그리워진다. 예전 같으면 지자체별로 봄꽃의 개화시기에 맞추어 각종 축제 일정을 잡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이 넘쳐났을 시기이지만 바야흐로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몸소 와 닿는 요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봄이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봄을 알리는 다양한 현상들을 떠올려 본다. 봄이 오면 앞다투어 피는 매화, 벚꽃, 개나리 등의 봄꽃들과 따뜻해진 도로 위에 피어나는 아지랑이, 향긋한 봄나물들이 있지만, 마냥 달갑지 않은 노란 흙먼지의 불청객, 황사도 있다.

그냥 흙먼지일 뿐인데, 황사는 왜 해로운 것일까?

황사 중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5.0 μ m 이하의 분진은 입이나 코를 통해 폐포에 침착되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건조한 환절기에 발생하므로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말라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이 약해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더 쉽다. 또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안구 및 피부도 황사에 취약하다. 결막염, 건성안 등 각종 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황사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황사가 발생할 때면 반도체 공장에서는 잦은 공기정화 필터 교체로 원가 상승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불량품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준다. 게다가 황사의 작은 분진은 정밀기계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가 하면, 항공기 엔진의 손상과 이·착륙 시 시정악화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황사의 또 다른 문제로는,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납,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채 날아와 우리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국제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 있으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한 현상에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기상 현상과 각종 환경오염원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를 끼치는 황사도 일부 이로운 점이 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비옥한 토양의 조성으로 이집트 문명의 밑거름이 된 것처럼, 전근대 시대의 황사는 한반도의 지력을 유지시켜주는 자연현상이었다고 한다.

황사의 이로운 점은
일부 부수적인 효과일 뿐

산성화를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황사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황사에 포함된 토양 성분 중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하며, 해양 플랑크톤이 섭취할 무기염류를 제공하여 생물학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황사의 이로운 점은 일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며,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더 크지만, 과거에는 봄나들이를 방해하는 불청객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모처럼 만개한 꽃들을 휩쓸고 가는 비바람만 피하면 언제든 봄을 만끽하러 나갈 수 있었고, 간간히 황사가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외출이 두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봄나들이는 어려워졌지만 불시에 찾아올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비하여 기상청 날씨 누리 홈페이지의 황사 관측 농도를 잘 확인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와 마스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처로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봄이 되길 바래본다.

대전지방기상청장 기고문 #3 빨라지는 여름, 폭염에 대비하자

빨라지는 여름을 대비해야

2019년 5월 15일 초여름 날씨를 보인 서울의 명동거리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도 있을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특히 광주광역시도 최고기온이 33.1도로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빨리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으며, 대전광역시도 29.6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올해도 5월이 시작되는 첫날, 강원도 삼척이 전국에서 가장 더운 33.6도를 기록했으며, 대전도 29.8도를 기록하였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의 시작일은 일평균기온이 20도 이상 나타나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의미하는데 최근 들어 여름의 시작일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봄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이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기후를 분석해 보면 여름이 빨라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대전의 여름 시작일은 1970년대에는 6월 6일, 1980년대는 5월 28일, 1990년대는 6월 2일, 2000년대는 5월 28일, 2010년대는 5월 21일로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더위가 빨리 시작하는 이유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년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른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은 2~3배 높아질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봄철 폭염이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10년간 5월의 평균기온은 18.1도로 평년보다 0.9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상청은 지구온난화 여파로 올해도 4월 중순부터 5월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머물면서 기온이 올라 늦은 봄인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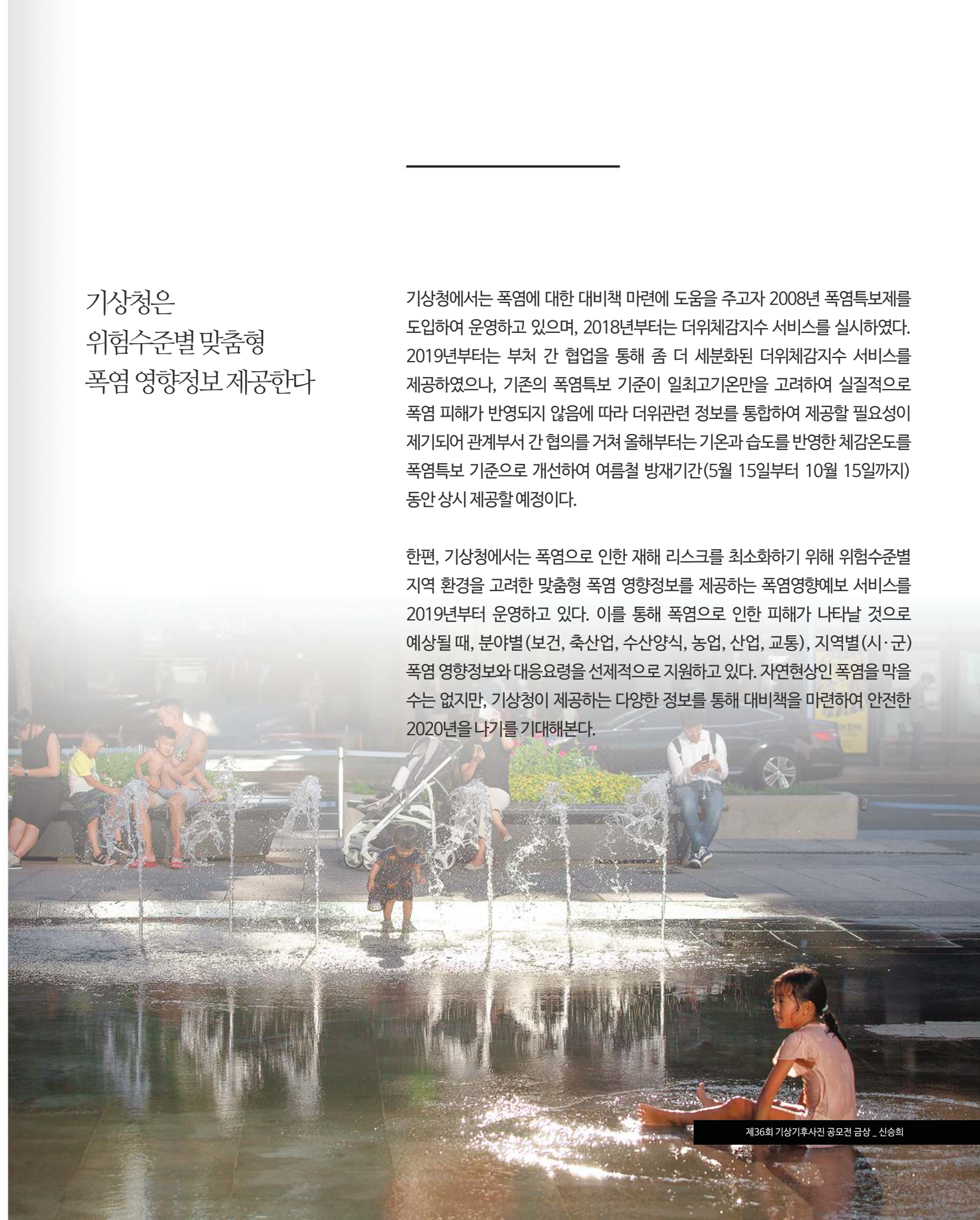
빨라지는 여름을 대비해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 같다.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폭염특보 발령 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스포츠음료, 과일주스를 마시고, 목욕이나 샤워로 체온을 내려 시원하게 하거나, 몸에 짝 끼지 않는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외출 시 양산 또는 모자로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기상청은 위험수준별 맞춤형 폭염 영향정보 제공한다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08년 폭염특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9년부터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좀 더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기존의 폭염특보 기준이 일최고기온만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폭염 피해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더위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폭염특보 기준으로 개선하여 여름철 방재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안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수준별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영향예보 서비스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때, 분야별(보건, 축산업, 수산업, 농업, 산업, 교통), 지역별(시·군) 폭염 영향정보와 대응요령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연현상인 폭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상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2020년을 나기를 기대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현장 중심의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한 '신규 예보관 교육' 실시 (3.2.~3.15.)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 3주에 걸쳐 신규예보관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사이동으로 대전, 충남지역으로 온 신규예보관에게 호우, 대설, 풍랑, 폭염 등 충남지역의 예보기술을 전수하고, 지형에 의한 지역의 국지특성을 교육하였다. 또한, 2주간의 실습훈련을 통해 현장특성을 충분히 숙지시킴으로써 현장중심의 예보관 역량향상과 예보기술 보급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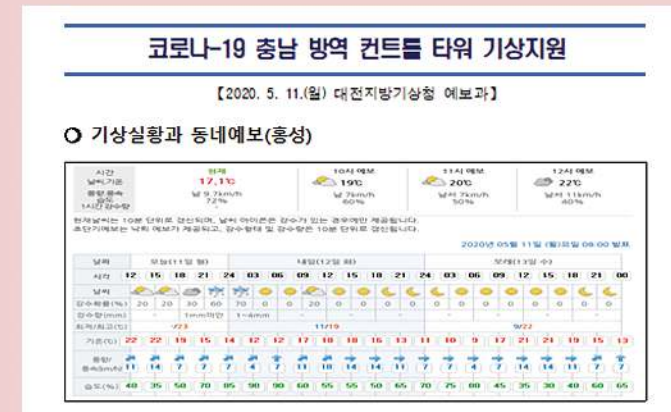
탄력적인 특보운영을 위한 예보관 현장 교육 실시 (3.4.~3.11.)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북부앞바다 평수구역의 탄력적인 특보운영과 해양 위험기상에 대한 지역 예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예보관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기상1호를 통해 밝혀진 충남 북부 평수구역의 해역별 특성을 숙지하고, 해양기상 가이드언스의 활용법을 배움으로 선제적인 특보운영과 해양 위험기상에 대한 지역기상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1분기 자체 기상관측세미나 개최(3.5.)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기상관측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해중합기상관측기지 소개 및 관측시설 운영방법의 공유를 위하여 자체 기상관측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WS 장비의 D-RAM 메모리 배터리 장착연도 파악으로 장비 장애의 선제적 대처 등의 토론을 통해 부서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하우 공유 등 소통을 통해 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방재기상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3.11.~)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 방역 컨트롤 타워인 충남도청 사회재난과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였다. 지역별 상세한 기상 현황과 강수, 바람의 예측자료, 동네예보와 중기예보 등 지역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방역대응 의사결정 지원은 물론 지역민의 안전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발간(3.27.)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후특성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2019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기상기후보고서에는 지역의 계절별 기후특성, 이슈기후(가뭄, 폭염 및 열대야, 장마, 겨울기온), 이상기후 현상 등을 담아 지역의 최근 기후특성 경향에 대한 이해도 및 이상기후 분석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기상기후사진전 입상작 대여(4.1.~12.31.)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기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2020년도 기상기후사진 공모 입상작'을 무료로 대여한다. 입상작은 총 38점으로 액자형(35점), 그림파일(35점), 타임랩스(3점)로 제공된다. 대여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상기후사진이 필요한 기관은 누구든지 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축제나 행사 등에 적극 대여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의 실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세종특별자치시 자동기상관측소 정식 운영(4.1.)

대전지방기상청은 세종ASOS(지점번호: 239)를 설치하고 지상기상관측소로 신규 등록하여 4월 1일부터 정규관측을 시작하였다. 지난해부터 1년간(2019.4.1.~2020.3.31.) 세종특별자치시에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하였고, 기상·기후 특성파악 등 정규관측을 위한 예비관측을 마쳤다. 앞으로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관측소로서, 기상재해 예방, 기후변화 대응, 도시발전계획 등 정책 결정과 여러 산업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4.7.~17.)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도심지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대전시와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시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추진하였다. 수위측정계, CCTV, 재난방송설비 등의 공동활용을 통해 집중호우 감시와 신속한 조기 판단, 그리고 재난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자(경험 자산)를 알자' 예보기술 세미나 실시(4.14.)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에 대한 지역 예보기술을 강화하고 선배들의 예보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예보기술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자를 알자'에서는 여름철 위험기상인 번개를 동반한 뇌운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므로 국지 위험기상 조기대응 및 지역 기상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환경 마련(4.10.)

예보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지역 예보기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예·특보 핵심기술을 축적한 표준교재를 제작하고 지역의 강사를 육성하는 한편,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제 네이버 카페와 G 드라이브(내부망)를 통해 지역 예보관들은 언제든지 국지특성을 연구할 수 있고, 네이버 밴드를 통한 실시간 원격 강의를 통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예보기술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찾아가는 해양 관계기관 소통 간담회 실시(4.21.~29.)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양기상서비스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찾아가는 해양 관계기관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을 수 없기에 9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해무실황 및 예측정보 서비스와 해수온도 예측서비스 등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추진하는 해양기상서비스를 소개하였다. 탄력적인 특보운영을 위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므로 대전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서비스가 어민, 선박관련 종사자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해양기상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0년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시작(4.22.~5.15.)

대전지방기상청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0년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스토리, 미디어, 디자인 분야 등 3가지 부문으로 캠페인명은 '1.5℃가 만드는 운명 교향곡, 기후변화' 이다. 이는 전지구평균기온 1.5℃ 상승의 과학적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의미이며, 수상작은 순회 전시회와 각종 기후변화 대국민 프로그램에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해상특보분리를 위한 '분리해역 명칭 선호도 조사' (5.1.~5.15.)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에는 해상상태가 서로 상이한 해역이 존재해 풍랑특보 발표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두 해역의 풍랑특보 분리운동을 추진하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분리 해역의 명칭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5월 1일부터 15 일간의 국민생각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해역분리가 이루어 진다면 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연구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개최(5.6.)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6일 내·외빈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지역 기상융합서비스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사업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기상 영향도 분석과 안개 상세지도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활용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세 현장답사 실시(5.13.~6.3.)

대전지방기상청은 태풍 영향예보 시범운영을 위해 태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세지형 및 환경특성을 조사하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5월 13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5개 팀을 구성하여 주요 여객선 항로와 해상 위험지역 및 태풍 피해지역을 함께 돌아보고 지역의 지형특성 및 국지기상 사례 분석을 실시 하므로 태풍 영향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상반기 기상관측표준화 워크숍(5.21.)

대전지방기상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전환 시행에 따른 정부방침에 발맞춰 온-나라 PC영상회의로 기상관측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유관기관 담당자의 기상관측표준화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하여 SNS로 Help Desk 운영방법을 소개하였다. 다양한의견수렴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



돌발호우 전문가 초청 예보기술 세미나 실시(5.20.)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기법 향상을 위해 돌발호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보기술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과 단시간 집중호우 발생 증가로 도시 하상 주차장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등 도심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기술 연구원 돌발홍수연구센터의 연구내용과 중점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므로 지역예보관의 역량 강화 및 예·특보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 브리핑 실시(5.22.)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부터 해상 위험기상에 대한 원격 해양브리핑을 추진한다. 관측자료가 부족한 해양은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풍과 풍랑 해무 등 해양위험기상 발생 시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위험기상 발생을 알리는 물론, 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 해상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브런치 기후 카페 6기 활동 참가자 모집(5.1.~6.15.)

대전지방기상청은 최신 문화 트렌드를 기후변화와 접목시켜 이해 확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에도 브런치 기후 카페를 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기 참가자를 모집하며, 코로나19로 기존 팀별 접수에서 개별 접수로 변경 되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SNS 등 파급효과가 있는 온라인 활동으로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기를 바라본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여름철 기상전망 언론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개최(5.22.)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언론인의 올 여름철 전망의 정확한 이해와 정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5월 22일 여름철 기상전망 언론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대전MBC, TJB 등 주요 15개 언론사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 봄철 기상특성 및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간담회가 언론과의 소통 도모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기상청장 대전(청) 업무점검(5.27.)

기상청장이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였다. 2020년도 대전지방기상청의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방기상청이 존재하는 목적, 기상특보 지원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당부하면서 올 한해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지 합동점검(5.27.)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상, 해양, 고층의 3차원 입체관측을 실시하는 서해종합 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대행역무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유지보수업체와 현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분야별 현장 합동 점검을 통해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3
March

3. 3. 매화 개화 (작년대비 1일 느림, 평년대비 32일 빠름)
 3. 8. 진달래 발아 (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대비 13일 빠름)
 3. 11. 개나리 발아 (작년대비 1일 빠름, 평년대비 7일 빠름)
 3. 12. 벚나무 발아 (작년대비 13일 빠름, 평년대비 15일 빠름), 매화 만발 (작년대비 3일 느림)
 3. 16. 진달래 개화 (작년대비 10일 빠름, 평년대비 13일 빠름)
 3. 19. 개나리 개화 (작년대비 7일 빠름, 평년대비 7일 빠름)
 3. 20. 복숭아 발아 (작년대비 9일 빠름, 평년대비 10일 빠름), 진달래 만발 (작년대비 8일 빠름)
 배나무 발아 (작년대비 6일 빠름, 평년대비 11일 빠름)
 3. 21. 3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금산: 5위 23.9℃
 3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대전: 5위 23.1℃, 금산: 2위 23.9℃
 3. 22. 개나리 만발 (작년대비 6일 빠름)
 3. 24. 벚나무 개화 (작년대비 5일 빠름, 평년대비 12일 빠름)
 3. 27. 대전·충남·세종 대표 벚꽃 군락지 계룡산 벚꽃 개화
 3. 28. 복숭아 개화 (작년대비 10일 빠름, 평년대비 13일 빠름)
 3. 29. 벚나무 만발 (작년대비 8일 빠름)
 3. 31. 복숭아 만발 (작년대비 12일 빠름)
 대전·충남·세종 대표 벚꽃 군락지 계룡산 벚꽃 만발

4
April

4. 4. 배나무 개화 (작년대비 8일 빠름, 평년대비 8일 빠름)
 4. 8. 배나무 만발 (작년대비 7일 빠름)
 4. 13. 아까시나무 발아 (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대비 1일 빠름)
 4. 22. 4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서산: 3위 28.5℃, 홍성: 3위 27.5℃
 4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 서산: 3위 28.5℃, 홍성: 2위 27.5℃
 4. 23. 4월 하순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 천안: 1위 - 0.9℃, 홍성: 1위 0.4℃
 4. 24. 4월 하순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 천안: 2위 - 0.8℃, 부여: 2위 - 0.4℃, 서산: 4위 0.4℃, 홍성: 4위 2.8℃

5
May

5. 6. 아까시나무 개화 (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대비 1일 빠름)
 5. 10. 아까시나무 만발 (작년대비 6일 빠름)

※ 개화관측 기준: 한 나무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
 ※ 만발 관측 기준: 한 나무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
 ※ 만발(활짝 피) 요소는 2015년 계절관측지침 개정으로 새로 추가되어, 평비값 없음
 ※ 홍성은 예비관측일인 2015. 11. 3. 부터 통계된 자료 (정규관측 개시일: 2017. 11. 1.)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 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
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
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0. 5.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세천(643), 문화(642), 장동(648), 세종전의(629), 세종연서(611), 세종금남(496), 세종고운(494)
계룡산(659), 계룡(636), 논산(615), 연무(644), 양화(635), 서천(614), 춘장대(646)
홍성죽도(610), 대천항(657), 서부(645), 홍북(608), 원효봉(694), 태안(627), 외연도(669)
정산(691), 호도(578), 근흥(607), 만리포(658), 웅도(667), 신평(637), 안도(666), 삽시도(609)
대산(606), 당진(616), 청양(618), 송악(493), 아산(634), 예산(628), 성거(617),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북격렬비도(229)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신청가능 대전지방기상청 체험학습

체험학습 소개

- 대전지방기상청은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잡고 있어 청사 주변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관람시설이 있음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학생 수준의 체험학습 가능
- 기상홍보관은 본관 3층에 위치



기상업무전시실
일기예보의 생산과정 및 기상서비스,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대한 안내



기상역사전시실
기상관측 역사 및 대전지방기상청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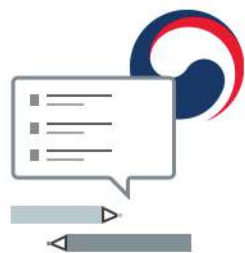


날씨방송체험실
직접 기상캐스터가 되어 날씨방송체험을 해 볼 수 있음



기상장비전시실
날씨를 관측하는 다양한 관측 장비를 실물로 비치

체험학습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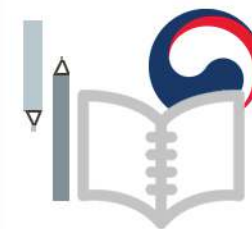


-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 주무관 또는 기상해설사에게 전화 신청
 - 담당 주무관 : 070-7850-4164
 - 기상 해설사 : 070-7850-4150

2020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일정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제목	대상
6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브런치 기후카페	학부모
7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브런치 기후카페	학부모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주니어닥터 연계)	초등학생
8월	브런치 기후카페	학부모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주니어닥터 연계)	초등학생
9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브런치 기후카페	학부모
10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브런치 기후카페	학부모
11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12월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멘토」	중학생
연중	진업특강 「Pick your dream Up!」	중고등학생
	대전지방기상청 견학 프로그램	전 국민



* 문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070-7850-4164)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